

대중문화 텍스트에 관한 SNS 비평 담론 연구
- 아이유 <Zeze>를 둘러싼 미학적 해석의 차이를 중심으로
The Discourse Research on Pop Culture Text through SNS
- Focused on the Difference in Aesthetic Interpretation of IU's Song <Zeze>

우지혜, 백선기
성균관대학교

Jihye Woo(woozeeh@gmail.com), Seon Gi Baek(baek99@skku.edu)

요약

비평은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일종의 인식 행위다. 이는 개인의 감상을 넘어 작품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한 시대의 인식 체계를 반영한다. 그런데 인식 체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문화·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 하듯이, 비평의 기준 또한 사회의 변화에 의해 달라진다. 오늘날 SNS의 등장은 대중문화 비평에 있어 대중의 역할과 참여를 비약적으로 증대시키고, 대중문화 생산-소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등 기존의 비평과 다른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는 비평의 다양성 및 자유 확대 등 긍정적 변화들을 가져왔으나, 한편으로는 무비판적인 비난 혹은 옹호, 비평의 기준 부재로 인한 가치 혼란이라는 부정적 결과 또한 초래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기존의 비평 행위와 그 이면의 인식 틀에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아이유의 <Zeze> 관련 논쟁에 대해 SNS를 통해 전개되는 담론에서 문화 행위자, 생산자 및 수용자의 비평 행위가 어떻게 전개되며 그로 인한 과장이 어떠한 가에 대해 분석했다. 궁극적으로는 SNS라는 새로운 매체 기술을 통해 비평의 행위가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나아가 우리의 인식 체계, 특히 미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했다.

■ 중심어 : | 대중문화 | 대중문화 비평 | SNS | 미학적 해석 | 아이유 <Zeze> |

Abstract

Criticism is related with recognition activity which is interpreting and evaluating the text based on the particular criteria. It reflects the awareness system of a particular time-period in that it is a work of social meanings beyond individual impressions. However, the standards of criticism have changed, like the awareness system has changed as economy, culture or technology has evolved. The emergence of SNS has influenced the field of popular culture. It improves the role and participation of the public in criticism. Moreover, it breaks the previous paradigm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cultural industry. These changes bring not only the positive ones, such as improvement of diversity and freedom of criticism, but also the negative one, confusion of values due to the absence of criteria. This study mainly concerned debates and discourses of SNS on <Zeze>, a new song of IU, and focused on changes of aesthetic evaluations of culture performer, producer and audience. Especially, the authors tried to find out how such new technology has changed the criticism, and how it has influenced on our aesthetic consciousness.

■ keyword : | Popular Culture | Pop Culture Criticism | Aesthetic Interpretation | IU <Zeze> |

I. 서론

오늘날 대중들은 단순히 대중문화 콘텐츠의 소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개인적 가치 판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다른 소비자와 함께 이를 공유하며 담론을 형성해 나간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생산자가 만든 문화 산물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용자로서 대중문화 비평에 참여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프로슈머(Prosumer)’의 등장과 맞닿아 있다. 프로슈머는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서, 전통적인 생산-소비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1]. 오늘날 일반 상품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영역에서 프로슈머들의 활발한 활동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시청자 게시판, 커뮤니티 사이트, 블로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화 생산자 및 생산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때때로 창작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SNS의 등장은 대중문화 비평 영역에 더욱 활발한 교류를 가져왔다. SNS는 네트워크 간 다발적 연결을 통해 사용자 간 소통의 통로를 확대시켰고, 이는 커뮤니티케이션의 비약적인 증대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넘어 관계 맺음이 가능해졌음은 물론, 특정한 조건 없이 SNS에 접속할 수만 있다면 어느 누구나 실시간으로 대중문화를 비평하고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 즉, SNS는 대중문화 비평의 주체, 내용, 기준 등에 있어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문화 텍스트 비평에 있어 SNS를 통한 대중의 참여 증대는 한편으로 비평의 기준 부재로 인한 가치 혼란, 무비판적인 비난 혹은 옹호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문화 텍스트는 명확한 의사소통이 아닌 은유와 상징을 통해 다의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해석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는 때때로 텍스트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둘러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비평은 어떠한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고 가치 판단을 내리는 일종의 담론 행위로서, 각 시대의 인식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따라서 하나의 텍스트에 대한 해

석의 차이 및 비평 행위의 변화는 해당 시대의 보편적 인식과 이데올로기 층위의 변화를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었던 가수 아이유의 노래 <Zeze>와 앨범 재킷에 대한 가수, 제작자와 출판사를 둘러싼 논쟁을 비평적 시각에서 고찰하고자 했다. 특히, 이들 논쟁을 주로 이끈 SNS 상에서 전개된 담론들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SNS를 통하여 각자의 입장에서 표출한 동일한 문화 텍스트에 대한 해석과 비평을 둘러싸고 생성된 담론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과,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비평 행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했으며, 나아가 문화, 사회적 층위에서 내재된 의미를 발견하고자 했다.

II. 이론적 배경

1. SNS의 등장과 대중문화 비평의 변화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로,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의 사회적 관계 생성에 초점을 둔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2]. SNS는 사용자들에게 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적, 감정적 유대관계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오프라인(off-line)에서의 소셜 네트워크 기능을 온라인(on-line) 공간으로 확장시켰다[3]. 그러나 SNS는 웹 기반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오프라인에 비해 연결의 범위가 규모가 현격하게 확대되며, ‘공개적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정보 공유의 장벽을 허물게 되었다[4].

SNS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등장은 기술적 측면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 있어 새로운 변화들을 가져왔다. 기술의 발달이 문화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로서, 포스터(M. Poster, 1995)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혁신은 단순히 생각이나 정보 교환의 효율성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문화, 즉 개인들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5]. 한편 카퍼(M. Kapur, 1991)는 신-구 커뮤니케이션 기술 간의 융합 안에서 미디어가 보

다 자유롭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공간으로서의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제공할 것임을 주장했다[6]. 이처럼 SNS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측면에서의 혁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가져 올 무궁무진한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SNS가 가져올 사회 변화 가능성으로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점들 중 하나는 바로 ‘사회 의제 형성의 패러다임 변화’다. 기존의 대중매체를 기반으로 한 일방향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는 소수 권력층이 정보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SNS의 다발적 네트워크 구조는 수많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획득하게 하고, 여타의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도 하루에 수 백 만개의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슈들이 SNS를 통해 생성되었다가 사라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SNS 상에서 의제 형성의 양상 및 구조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신현기·우지숙(2011)은 트위터의 토론 구조를 기존 인터넷 게시판의 토론 구조와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그 결과 트위터의 담론은 ‘RT(re-Tweet)’, ‘Following’ 등의 새로운 기능을 통해 동시다발로 담론이 생성되고 확산되고 있음을 발견했다[7]. 백선기(2011)는 기호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SNS에서 표출되는 표현들의 기호적 특성을 분석하여, 중요한 사회나 정치적인 특징의제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의미화 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8]. 최근 들어, 강동현(2016)은 기존에 ‘네트워크의 위계화’ 경향에 대한 연구와 최근 통계물리학 및 네트워크 과학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는 ‘분화’의 개념을 통합하여 재구성한 네트워크의 유형을 새롭게 제시했다[9]. 이는 위계와 수평, 통합과 분화의 서로 상반되는 양상이 공존하는 SNS 네트워크의 특성을 간단한 도식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대중문화 영역에 대한 사회적 의제 또한 SNS를 통해 다양하게 생성되고 확산된다. 이는 비단 정보 흐름의 증가만을 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생산-소비 구조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대중문화 산업에서 소비자, 즉, 수용자의 역할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 기존에는, 소수의 생산자나 비평

가에 의해 창작물에 대한 의미나 가치가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달리 SNS를 통해 대중들은 스스로 창작물에 대한 내용을 취사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담론을 생성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이처럼 오늘날 대중문화의 의미 생성 과정에 있어 수용자의 비평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SNS의 발전은 더 많은 대중들이 비평 담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미 생성에 있어 대중의 역할을 크게 증대시켰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는 미학적 체계의 정립과 미적 판단의 정당성 부여의 권한이 대중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2. 대중문화 SNS 비평과 담론 연구의 변화

오늘날 SNS의 등장으로 대중의 참여가 급격히 증가되어 대중문화에 관한 비평 담론이 더욱 활발하게 생성되고 있다. 담론이란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특정 시각이나 입장을 담고 있으면서 사회 내에서 형성되는 이야기나 텍스트, 혹은 발화들의 집합[10]”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담론 안의 발화 내용이 단순한 텍스트의 짜깁기가 아니라, 다양한 발화자의 행위 목적과 발화되는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아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는 점이다[11]. 이에 대해 푸코(M. Foucault, 1992)는 담론이 기존의 인식 체계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우리의 지식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주장했다[12].

대중문화의 텍스트는 그 자체로 의미를 구성하며, 사회적으로 공유된다는 점에서 담론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대중문화에 관한 기존의 담론 연구는 대중문화 생산물이 내재한 텍스트의 담론 분석으로부터 시작하여, 실제 소비자의 수용과 그들이 새롭게 생성하는 의미를 살펴보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11].

대중문화 텍스트를 중심으로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헵디지(D. Hebdige, 1979)가 있다. 그는 당시 영국 내에서 청년 문화로 대두되던 펑크스타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중, 펑크스타일에서 나타나는 양상들이 단순히 개별적인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문화에 대항하는 새로운 담론으로서 사회 내 인식 체계와의 작용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였다[13].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텍스트에 의존하여 의미를 찾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들은 텍스트 중심의 담론 연구는 실제 텍스트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구성원을 고려함에 실패했음을 비판했다. 대신에, 텍스트의 다의성을 근간으로 독자에 의한 의미 구현 과정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수용자와 소비자를 텍스트의 능동적 창조자로 인식하는 수용자 연구가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몰리(D. Morley, 1989; J. Curran, 1999)는 텍스트 해독에서 수용자가 위치한 하위문화의 사회적 경험을 중요한 변수로 들면서, 현장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로 수용자가 텍스트로부터 어떤 의미와 반응을 나타내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몰리는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해독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을 주장하였다[14]. 나아가, 피스크(J. Fiske, 1989)는 대중문화의 의미구성에 있어 보다 소비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신 수용자론’을 제시했다. 그는 텍스트의 의미 구조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수용자의 자율적인 의미 생산 활동이 가능하다고 간주했다[15]. 그러나 신 수용자론은 수용자의 관점에 치우친 대중문화에 대한 무분별한 옹호에 불과하며, 질적 판단의 결여로 인한 결과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SNS로 인한 대중문화 비평에서의 수용자 역할과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SNS는 참여, 개방, 대화, 커뮤니티, 연결과 같은 미디어적 특성을 바탕으로[16] 이용자 간 상호작용성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있다. SNS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은 보다 자유롭게 참여하고 정보를 생산하며 소비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SNS는 기존 매스미디어보다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며, 개인들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형성한다[17]. 이러한 점에서 SNS의 수용자 담론은 기존 매스미디어의 담론에 비해 수용자의 의견을 보다 신속하고 집단적으로 확산하게 된다.

3. 대중문화 텍스트의 다의성과 해석 차이

SNS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가 가능한 만큼 다

양한 의견 개진과 그로 인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SNS에서의 담론은 텍스트의 다의성과 해석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와 깊이 연계되어 있다.

여기서 텍스트(text)의 개념은 기호학, 문화연구 등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개념으로, 특정한 구조를 근간으로 연계된 기호들의 복합체를 의미한다[18]. 전통적인 문학 비평에서 작품을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로 접근하는 것과 달리, 바르트(R. Barthes)는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무한한 의미를 생성하는 것으로 간주했다[19]. 그는 텍스트의 개념을 텍스트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의미 투쟁의 장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연구에서는 대중매체의 텍스트가 대중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의미 작용하는가에 주목해 왔다. 텍스트의 다의성에 대한 논의 역시 지속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피스크(J. Fiske)는 텔레비전 텍스트 연구를 통해, 여러 상이한 의미들이 복합적이며 중층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치열한 의미 투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20].

이와 같은 텍스트의 다의성은 비평에서의 해석 차이를 낳게 된다. 비평은 기본적으로 기술(description), 해석(interpretation), 평가(evaluation)로 구분되는데[21], 비평에서의 해석은 즉각적이고 객관적인 인지를 넘어 해석자의 언술 행위로서 텍스트에 대한 해석자의 준거나 믿음, 상황에 따른 다양한 변수들이 개입된다[22]. 이로 인해 하나의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해석자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역사적으로 미학에서는 작품 해석에 있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창작자의 의도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해야 한다는 ‘의도주의 이론’과 수용자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수용자 이론’의 대립적 논쟁이 있다. 의도주의 입장의 허쉬(E. Hirsch, 1995)는 작품의 의미가 작품을 창조한 작가의 심리적 의도에 근거하여 확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학자 리빙스턴(P. Livingston, 2005)은 작가의 의도 및 그가 위치한 사회와 문화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작품의 의미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수용자 이론은 다수 해석자에 따른 다양

한 해석을 인정하는 입장으로서, 대표적으로 굿먼(N. Goodman, 1976)은 작품은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석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해석은 기호 해독의 방식에 따라 다수의 올바른 해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22]. 한편, 홀(S. Hall, 1973)은 텔레비전 담론 속 부호화와 해독(encoding & decoding) 연구를 통해, 수용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상황에 따른 정치적 함의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달리 받아드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변형과 왜곡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23][24].

이와 같은 문화 텍스트의 다의성은 해석 과정에서의 즐거움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소통의 어려움과 혼란을 가져온다.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 에코(U. Eco, 1990)는 창작자의 의도와 작품 텍스트의 의미, 그리고 해석자 사이에서의 균형을 중요시 했다. 그는 작품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이는 동시에 창작자가 의도한 일정한 방향에 따라 한계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즉, 창작자가 의도한 텍스트의 방향성을 따라가면서, 이에 대한 의미의 완성은 수용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와 같이, 창작자와 수용자의 상호작용적 협업을 통해 비로소 작품의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25].

결국 작품을 둘러싼 해석의 문제는 ‘작품 텍스트’, ‘창작자’, ‘수용자’ 등이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함이 아닌, 새로운 의미의 창조를 위한 시도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26].

4. 아이유 <Zeze>에 관한 SNS 비평 담론

한국의 여자 아이돌이자 싱어 송 라이터로 유명한 ‘아이유’는 2015년 10월에 앨범 <CHAT-SHIRE>를 발매했다. 해당 앨범은 아이유가 최초로 직접 제작한다는 점에서 발매 전부터 대중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발매 후 앨범 수록 곡 중 하나인 <Zeze>에 대한 해석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이는 SNS를 통해 거대한 담론을 생성해 나갔다.

논란의 중심이 된 곡 <Zeze>는 소설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의 등장 캐릭터인 ‘제제’와 나무 ‘밍기뉴’를 모티브로, ‘밍기뉴’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제제’의 모습을 담고 있다. 해당 곡이 논란이 된 이유는 원작 속 캐릭터를

차용했지만 그와는 달리 ‘제제’를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물로 표현했고, 더불어 앨범 자켓에 ‘핀업 걸(pin-up girl)’ 이미지와 유사하게 ‘제제’를 묘사하여 ‘성적 대상화’ 의도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그림 1] 참고).



그림 1. 앨범 자켓 속 ‘제제’의 이미지(좌), 핀업걸 이미지(우)

특히 해당 캐릭터가 5살짜리 아동이었다는 점과 원작 ‘나의 라임오렌지나무’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다룬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를 증대시켰다.

아이유 <Zeze> 담론은 2015년 11월 4일 출판사 ‘동녘’의 페이스북을 통한 비판의 글을 시초로 촉발되었고, 이틀 후인 11월 6일에 아이유가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해명 글이 수만 건의 댓글과 ‘좋아요’를 획득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해당 담론은 진중권, 허지웅, 이외수 등 수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SNS 인사들의 갑론을박을 통해 더욱 확대되었다.

이들 담론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첫째는 원작 속 아동 캐릭터인 ‘제제’를 성적 대상의 여부를 둘러싼 찬반 문제이고, 둘째는 원작과 달리 해석한 노래 속 캐릭터에 대한 인정여부이며, 셋째는 예술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중 어느 것을 더욱 더 중요한 덕목으로 여길 것인가이다.

이처럼 아이유 <Zeze> 담론은 SNS를 통해 작품 해석 및 평가에 대해 아주 커다란 사회문화적 논쟁이 전개된 사건으로서, 한국 대중문화 비평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III.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연구 문제 1] 아이유 <Zeze>에 관한 SNS 비평 담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 문제 2] 아이유 <Zeze>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발생시킨 원인, 전개과정 및 과장은 무엇인가?

2. 연구 방법

2.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아이유 <Zeze>와 관련하여 논의된 SNS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2015년 11월 4일에 출판사 '동녘'이 직접 올린 페이스북의 글들과 해당 글에 달린 댓글이 첫 번째 분석 대상이다. 동녘의 페이스북 글은 담론 생성의 시초이자 주요 논점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 아주 중요하다. 다음으로 2015년 11월 6일에 올라온 '아이유'의 페이스북의 글들과 해당 글에 대한 댓글을 두 번째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곡의 창작자인 아이유의 직접적인 해명을 분석함으로써 아이유의 창작 의도를 살펴보고자 했다.

각각의 글에 대한 댓글 중에서는 전체 댓글의 '좋아요' 평균 횟수인 8회 이상을 받은 것들만 선별했다. 이에 따라 동녘 글에 대한 댓글 59개와 아이유 글에 대한 댓글 118개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분석되었다. 해당 글들에 대한 댓글 분석은 SNS만의 쌍방향적 의사소통의 특성으로 인한 새로운 문화 비평적 요소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2.2 분석 방법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은 텍스트와 사회 사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석방법으로서, 사회 의제들, 이슈들 및 문제들에 대해 생성된 담론들을 분석한다. 언어학, 기호학 및 담론학의 근본 개념과 시각들을 근간으로 분석한다. 담론 분석은 담론 자체의 내용과 의미만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

고, 텍스트에 대한 의미 분석, 텍스트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분배 과정을 고찰하며, 담론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차원까지 확대하여 분석한다[2].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페어클라우(N.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 분석 틀'을 활용하고자 한다[27][28]. 이는 구체적인 분석 방법이 아니라 비판적 담론 분석이 어떠한 차원과 층위에서 분석되는 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분석 틀'이다. 페어클라우는 담론을 세 가지 층위에서 분석하는데,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담론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형식과 내용을 파악한다. 이 단계에서는 텍스트의 미시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다양한 기호학적 분석 방법들이 활용된다. 예를 들어, 범주화, 과어휘화, 전체 분석 등이 주로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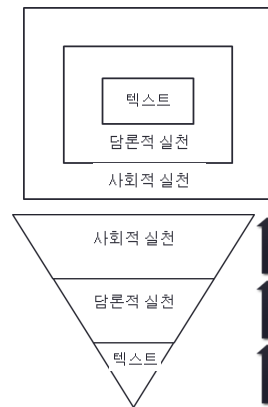


그림 2. 페어클라우(Fairclough, 1989)의 비판적 담론 분석 틀

다음으로 담론적 실천 층위에서는 텍스트의 전개 상황 및 맥락, 발화의 주체, 그리고 기타 제반 요인들을 살펴본다. 담론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백선기(S. Baek)의 '기호네트워크 분석방법(semiotic network analysis: SNA)'을 사용하였다. 이는 기호들로 이루어진 주요 의미네트워크들을 근간으로 하여 각각의 의미네트워크의 속성과 층위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으로서 사건의 심층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29].

마지막 단계는 담론의 사회적 실천 층위에서 분석한 것으로서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의미 파악에 집중한다. 이는 텍스트를 둘러싼 사회, 권력, 문화 및 신화

적 맥락을 포함하여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심층적 의미를 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IV. 연구 결과

1. 출판사 동넉 중심의 SNS 텍스트

1.1 텍스트 분석

1.1.1 동넉 측 페이스북 게시글

2015년 11월 4일 출판사 동넉 측에서 아이유 <Zeze>에 관해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을 대상으로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1. 동넉 측 페이스북 게시글의 내용 분류

분류	텍스트 내용
원작에 대한 평가	제제는 학대를 받고 상처로 가득한 아이, 밍기뉴는 유일한 친구, 제제가 이중적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학대에 따른 반항심과 애정결핍에 따른 것, 작가의 자전적 소설, 작가의 의도가 있는 작품, 수많은 독자들이 눈물을, 수많은 제제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
곡에 대한 평가	밍기뉴 관점에서 제제는 교활하다?, 이렇게 평가하디니요, 잘못된 해석
섹슈얼리티	제제를 성적대상으로 삼았다, 제제에다가 망사 스타킹을 신고 핀업걸 자세
예술	물론 창작과 해석의 자유는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대중들의 공감 하에 이뤄지는 것

전반적으로 아이유 <Zeze>에 관한 동넉 측의 비평 내용은 부정적이다. 동넉은 아이유의 창작물을 평가함에 있어 첫째로, 기존 소설에서의 캐릭터의 특성 및 관계, 나아가 원작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강조한다. 이와 같은 원작의 요소는 아이유의 <Zeze>를 비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 기준으로 간주된다. 동넉 측은 원작의 캐릭터를 노래 속 캐릭터와 동일 인물로 간주하며, 소설 속 내용에 기반을 두고 노래 가사를 분석했다. 이는 동넉 측이 2차 가공물을 평가함에 있어 원작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이에 따라 아이유의 캐릭터 및 스토리에 대한 재해석이 원작과 비교했을 때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노래 가사 및 앨범 자켓 이미지 속에 내재된 제제의 '성적 요소(sexuality item)'를 지적하며 아이유의 재해석을 더욱 문제시 삼는다. 동넉은 기본적으로 원작의 가치를 훼손한 것에 분노했으며 다양한 이의제

기를 전개했다. 아이유가 나름의 재해석을 통한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주장에 대해 예술 표현 역시 사회적 책임 및 공감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1.1.2 동넉 측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한 댓글

출판사 동넉 측이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은 총 799개의 댓글과 6,834명의 '좋아요', 565회의 공유를 획득했다 [30]. (2016년 8월 16일 기준) 해당 댓글 중 8회 이상의 '좋아요'를 받은 59개의 댓글을 대상으로 '범주화 분석', '과어휘화 분석' 및 '전제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범주화 분석

댓글의 범주는 크게 '뮤지션 아이유에 대한 평가', '곡 <Zeze>에 대한 평가', '원작 <나의라임오렌지나무>에 대한 평가', '출판사 동넉에 대한 평가', '섹슈얼리티', '예술', '아이유의 팬에 대한 비판' 등 총 7가지로 구성된다. 이들 범주들은 아이유 <Zeze> 비평을 위해 중요한 준거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표 2. 동넉 측 페이스북 글에 대한 댓글의 범주화

대분류	소분류	텍스트 내용
뮤지션에 대한 평가	이미지	국민 여동생, 그녀만의 독특한, 좋은 아티스트, 빛보종과 가난에 시달려왔다면, 양면적인, 대중가수
	자질	책을 읽었는지 의심스러운, 타인의 고통을 쉽고 가볍게 생각, 상업적으로 돈 벌려고 하는, 추악하고 못된 생각, 비정상
곡에 대한 평가	긍정 및 옹호	틀린 해석은 아님, 의도는 본인만 아는 것, 피드백 필요
	부정 및 비난	베베 꼬인 생각, 무례, 작품 훼손, 오해석, 상상도 못할 표현, 모욕, 대상의 본질 왜곡, 정도를 지나친, 상업적 이용, 실망스럽다, 욕 먹은 만한, 의아, 괴심
원작에 대한 평가	캐릭터	5살 아동, 가없고 불쌍한, 학대당하는 아이, 가정폭력의 피해자
	작가	자전적 작품, 작가의 어린 시절을 담은,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작가의 마음,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는 용기
	내용	교활하다는 말은 폭력을 가한 아빠가 한 말, 실화, 실업에 좌절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가 벨트로 맞는 장면
	가치	아름답다, 날 울렸던 제제, 감동을 준, 제일 좋아하는, 간직하고 있는, 세상에 존재할 많은 '제제'들을 위해, 간직하는
출판사에 대한 평가	이미지	꽤 역사 깊은, 문학 전공자, 원작에 애정 있는, 판권만 가진, 마치 원작자를 대변할 권리가 있는 듯

	비평	주류가 되는 해석, 출판사 잘못 아님, 코미디, 호들갑, 만들어진 이슈, 어그로, 문학의 의의를 훼손, 무슨 원작자야?
섹슈얼리티	뮤지션	합법적 롤리타, 페도필리아의 왜곡된 이미지 재생산에 관여, 성의식이 제대로 박히지 않은, 예전부터 롤리타 요소로 얘기가 많은, 소아성애자 컨셉
	캐릭터 해석 (가사)	페도의 틀에 넣어 성 상품화, 성적 미장센, 애기한테 성적 프레임 씌우는, 성적 판타지의 주인공, 남녀 간의 구도로 해석, 색안경, 예로 시종적인 관계
	성범죄	전형적인 아동성범죄자들이 자기 호호에 쓰는 더러운 변명, 롤리타는 범죄다, 조두순(성 아동범죄자) 실드와 같다
예술	표현, 해석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감상의 가이드라인 제시 가능, 독자에게 저마다의 감상, 해석이 사지선다도 아닌데, 틀린 해석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 창작은 자유, 자기 기준을 강요는 바람직하지 않아
	순수예술과의 비교	예술을 가장한, 윤리 위에 예술 없어, 창작의 고통을 겪지 않고, 예술가들이 얼마나 힘들게 작품 만드는지 모르니까, 순수예술 건들지 말기
뮤지션의 팬에 대한 비판		무논리 팬들, 비 전공자, 아이유빠, 전공자도 아닌, 문학적으로 무지, 기본을 모르는, 책 읽으세요

동넉 측 게시글에 대한 댓글들은 전반적으로 동넉 측의 주장과 견해를 지지하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캐릭터 차용에 있어 아이유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이나 불편함을 느낀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특히, 아이유의 제제에 대한 ‘성적 대상화’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크게 대두되었는데, 제제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아동 성범죄’, ‘롤리타 콤플렉스’ 등 보다 ‘아동성애’의 범주로 구축되었다. 이는 아이유의 예술가적 자질과 인간적 자질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으며, ‘창작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한편, 출판사의 비평 행위에 관한 담론에서는 출판사의 문학적 전문성을 근간으로 동넉에서 제기한 평가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호들갑’, ‘어그로’ 등 출판사의 평가 행위를 달갑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 역시 동시에 제시되었다.

이처럼 범주화 분석은 곡을 해석하고 평가함에 있어 수용자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는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댓글 범주화를 통해서도 주로 내재적 비평보다는 외재적인 부분, 즉 ‘원작 소설의 내용’, ‘뮤지션의 이미지’, ‘성적 이미지’ 등과 관련된 평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② 과어휘화 분석

동넉 댓글에서 나타난 과어휘화 결과는 ‘원작에 대한 애정’, ‘소아성에 컨셉의 캐릭터 표현’, ‘곡에 대한 비판’ 등에 대해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표 3. 동넉 측 페이스북 글에 대한 댓글의 과어휘화

분류	텍스트 내용
원작에 대한 애정	내 마음 속 제제, 많은 이들이 사랑한 제제, 아직도 곱게 간직한, 제일 좋아하는 책 중 하나, 순수
소아성애 컨셉의 표현	아동을 성대상화, 페도필리아의 왜곡된 이미지, 성 상품화, 5살 아동에게 섹시하다
곡에 대한 부정적 평가	베베 꼬인 생각, 오독, 작품 훼손, 정도를 지나친, 부적절하고 더러운 형용사, 본질 왜곡

첫째로, 댓글에서는 원작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애착을 언급하며 원작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곡에서의 ‘섹슈얼리티’ 문제 중에서 아동에 대한 성적 표현으로 인한 ‘소아성애 컨셉’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곡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기호들이 다수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원작에 대한 ‘애정 및 소아성애 컨셉’과 깊이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곡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바탕에는 ‘원작 소설에 대한 강한 애착’과 ‘소아성애 컨셉에 대한 의심’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③ 전제 분석

해당 댓글 담론의 기호들이 전제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작품 해석에 있어 옳은 해석과 잘못된 해석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2차 창작물을 평가함에 있어 ‘원작을 큰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간으로 아이유의 가사 속에서 성적 요소를 띠고 있다고 하는 ‘제제’에 대한 재해석은 기존 원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된 해석이라는 결론에 도출한다.

더불어, 가사 속 ‘제제’는 원작 속 ‘제제’와 동일 인물이라는 전제 하에 5살 아동에 대한 ‘성적 메타포’를 입혔다는 점에서 소아성애 문제로 비약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이유의 자질에 대한 비난과 성범죄 가능성과 연관되어, 예술가의 윤리적 책임 문제가 강하게 대두되는 양상을 보였다.

1.2 담론적 실천 분석

동넵 층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그에 달린 댓글들을 전체적인 담론의 맥락에서 함께 살펴보면, 아이유 <Zeze>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서로 높은 연계성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댓글의 담론이 앞서 게시된 동넵의 비평의 흐름과 내용을 따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를 참고하면, 동넵의 댓글 담론은 기존의 동넵 글에서의 원작에 대한 평가나 섹슈얼리티, 예술과 같은 범주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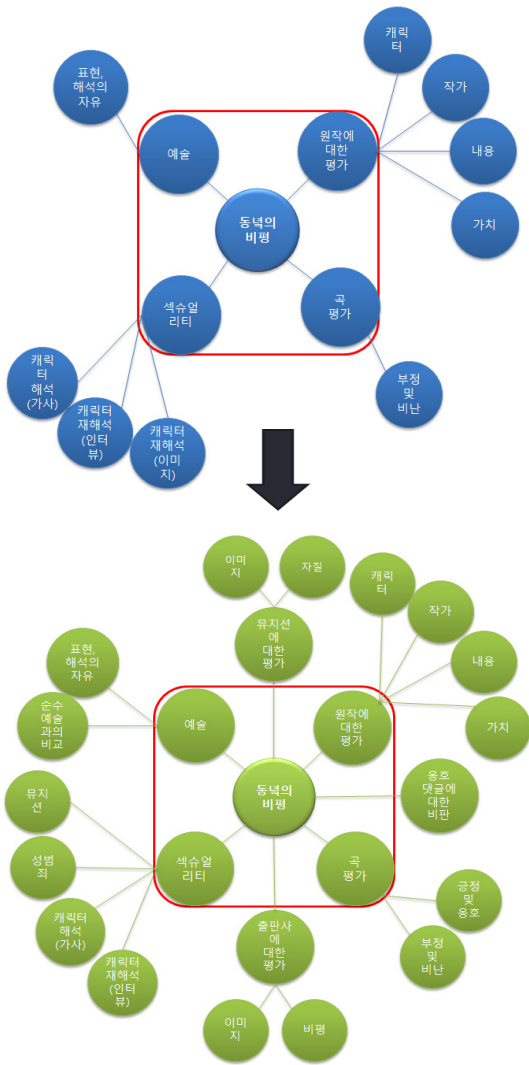


그림 3. 동넵 층 페이스북 글의 담론 구조(위), 동넵 층 페이스북 글에 대한 댓글의 담론 구조(아래)

그러나 댓글 담론에서는 ‘뮤지션’, ‘출판사’, ‘뮤지션의 팬’에 대한 평가와 같은 새로운 범주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범주를 보다 세부화시킴으로써 비평의 기준을 확장시키고 있다. 혹은 ‘캐릭터 재해석(이미지)’ 범주와 같이 댓글에서는 해당 담론이 사라지기도 한다. 이처럼, 본 담론은 동넵이 제기한 비평의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범주가 댓글 담론에서 강화되고, 추가되며,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담론의 구조를 통해, ‘원작에 대한 평가’와 ‘섹슈얼리티’에 관한 범주가 눈에 띄게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곡 <Zeze>를 평가함에 있어 원작에 대한 평가 및 섹슈얼리티 문제가 큰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댓글 분석 결과, 원작 훼손 담론과 소아성에 비난 담론이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났다. 원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강해질수록 아이유 <Zeze>의 원작 훼손에 대한 비난이 커졌고, 아동에 대한 성적 표현의 의구심이 커질수록 해당 곡의 소아성에 비난 담론이 강해졌다.

1.3 사회적 실천 분석

동넵의 게시글과 댓글에서 두드러진 ‘원작 훼손 담론’과 ‘소아성에 비난 담론’은 신속하게 사회적 실천 차원으로 이동(전이)하게 된다. 첫째로, ‘1) 원작 근본주의’다. 원작의 아우라가 2차 창작물을 감상하고 평가함에 있어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여, 2차 창작물은 기존 작품의 내용이나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양상을 띠게 된다. 둘째로, ‘2) 도덕주의’의 강력한 작용이다. 특히 아동에 대한 성적 표현을 강하게 금기시 하며, 나아가 예술에서 창작의 자유 이전에 사회적 동의 및 책임을 우선시 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3) 지식 우

- 1) 근본주의는 초기에 종교와 관련된 용어로, 종교의 교리와 원칙에 대한 충실성을 강조하는 사고 및 태도로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원칙적 근본을 고수하는 보수주의를 가리킨다. 본 논의에서 원작 근본주의는 원작의 내용과 형식이 근본적인 기준으로 지켜졌는가를 의미한다.
- 2) 일반적으로 도덕적 가치 또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중시하는 지적·정서적·윤리적 입장에서, 문학과 예술 일반에 적용될 경우, 문학·예술이 지닌 가치를 부정하고 도덕적 가치만으로 평가하려는 경직화된 입장을 의미한다.
- 3) 우월주의는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 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태도 또는 사고방식을 일컫는다. 지식 우월주의는 지식의 소유에 따라 우열을 가르는 태도 및 사고를 의미한다.

월주의'에 대한 믿음이다. 이는 해석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원작 텍스트에 대한 지식의 정도에 두고 평가하는 양상이다. 실제로 댓글에서 책에 대한 지식을 기준으로 출판사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반면, 아이유 팬의 옹호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음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2. 아이유 중심의 SNS 텍스트

2.1 텍스트 분석

2.1.1 아이유 측 페이스북 게시글

2015년 11월 6일 아이유가 <Zeze> 관련 논란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 글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표 4. 아이유 측 페이스북 게시글의 분류

분류	텍스트 내용
원작에 대한 평가	정말 소중한 소설
곡의 창작의도	이번 음반은 아이유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생각들을 기반으로 두고 소설 속 캐릭터들을 대입해 만든 곡들, 가사 속 제제는 소설 내용의 모티브만을 차용한 제 3의 인물, 다섯 살 어린이가 아닌 양면성이라는 "성질"에 대하여 (색시하다고) 이야기
사과 및 반성	가사가 충분히 불쾌한 내용으로 들릴 수 있다. 가사로 인해 마음에 상처 입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 작사가로서 미숙했던 탓, 저의 불찰,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욕심, 실수가 많았다, 반성하고 노력해서 반드시 더 성숙한 모습을
섹슈얼리티	맹세코 다섯 살 어린이를 성적 대상화하려는 의도로 가사를 쓰지 않았습니니다, 어린이가 언급된 문장에서 굳이 "색시하다"는 단어를 사용하여 오해를 야기

아이유는 곡의 창작 의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캐릭터의 성질', '모티프 차용', '앨범 전반의 의도' 등 3가지 측면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선, 자신은 원작 소설의 '제제(Zeze)'를 차용함에 있어 캐릭터 전체가 아닌 여러 성질 중 하나인 양면성만을 염두 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가사 속 제제는 소설 내용의 한 모티브만을 차용한 것으로 소설 속 '제제(Zeze)'와 다른 제 3의 인물임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앨범은 소설 속 캐릭터를 아이유의 경험과 생각을 기반으로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의 근거를 통해 결국 논란이 된 아동의 '성적 대상화'의 의도는 없었으며, 오해와 실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아이유는 '문학 작품의 해석은 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자신의 2차 창작물이 기존의 원작과는 분리 독립된 새로운 창작물로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창작물 역시 자신이 의도한 바대로 해석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1.2 아이유 측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한 댓글

아이유 측이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은 총 11,000개의 댓글과 76,000명의 '좋아요', 1,725회 공유되었다[31]. (2016년 8월 16일 기준) 해당 댓글 중 8회 이상의 '좋아요'를 받은 118개의 댓글을 대상으로 '범주화 분석', '과어휘화 분석', '전제 분석'을 시행하여 다음의 결과를 발견하였다.

① 범주화 분석

댓글의 범주는 크게 '뮤지션 아이유에 대한 평가', '곡 창작 의도에 대한 반응', '아이유의 사과 및 반성에 대한 반응', '원작에 대한 평가', '섹슈얼리티', '예술', '댓글에 대한 반응' 등 총 7가지로 구성되었다.

표 5. 아이유 측 페이스북 글에 대한 댓글의 범주화

대분류	소분류	텍스트 내용
뮤지션에 대한 평가	이미지	영악한 아이들, 여우같은, 방송과 실제 이미지가 다른, 청순한 여동생, 아티스트, 노래를 사랑하는, 로리타 컨셉의
	자질	아이유 별로네요, 책임감 없는, 허세, 영악한 사람이 절대 아닌데, 도전이 대단
창작 의도에 대한 반응	성질	양면성이면 제제 대신 다른, 성질도 제제의 일부 분, 성질에 대한 표현이라도 잘못, 양면성은 아동심리학에서 학대에 따른 것, 제제의 조속성에 주목, 성질의 주체는 제제
	모티브	제 3의 인물이 무슨 논리, 왜 제제라는 이름을 사용, 갑자기 말 바꾸는, 누가 봐도 모티브만 따온 게 아니다, 소설 속 제제와 매칭이 잘 됨, 제 3의 인물도 결국은 어린이아이
사과 및 반성에 대한 반응	긍정 및 옹호	힘내요, 파이팅, 고마워요, 상심하지 마요, 배우는 과정, 그런 의도가 아닌 것 같아, 해석 차이는 있기 마련
	부정 및 비난	교묘히 다 빠져나가네, 제대로 된 반성 없이, 잘못 만든 노래, 선택적 피드백,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앞뒤가 안 맞는, 회피, 모순
	행동 촉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피드백 필요, 로리타 컨셉에 대한 설명, 편집걸 포즈에 대한 해명, 앨범 수익 환원, 전량 회수
원작에 대한 평가	베스트셀러, 순수, 학대 후유증, 상처 많고 사랑 받고 싶은 5살 꼬마, 유일한 친구 밍기뉴, 깊이 있고 중요 소재를 다룬	
섹슈얼리티	뮤지션	예전부터 얘기 했던 로리타 연상, 로리타 컨셉의 회복 사진, 소아성애자 컨셉

	캐릭터 해석 (가사)	소아성애적 내용을 담은, 성적 클리셰, 제제의 양면성이 성적 매력이 될 수는 없다, 다섯 살짜리가 섹시합니까?
	캐릭터 해석 (인터뷰)	밍기뉴 관점에서 제제에게 하는 가사라면서, 인터뷰에서 밍기뉴가 제제에게 질투 비슷한 걸 느끼는 부분이 여자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할, 얼레리골레리
	캐릭터 해석 (이미지)	망사 입은 제제, 핀업걸 자세를 한 어린아이, '23' 뮤비의 아동성폭행 영화에 나오는 장면, 로리타, 소아성애의 앨범 컨셉, 제제 이외의 로리컬적인 클리셰와 메타포들, 뮤비 속 짓병 장면
	성범죄	소아성애가 범죄로 지정, 어린이 성상품화는 더러운 범죄, 로리타 콤플렉스는 아동성폭력과 연결될 확률이 높후, 아첨법
예술	표현, 해석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도 넘을 수 없는 선이, 문학적 허용을 지나친, 아티스트가 자신의 생각을 작품에 표현한 것, 로리타 컨셉은 표현의 자유가 아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 거면 잘못 만든 것
	순수예술과의 비교	음악앨범은 하나의 문학 작품, 문학의 탈을 쓴 채 이분 구도를 강요하는, 예술로 승화시키는 일 없어야
댓글에 대한 반응	응호댓글 비판	되도 않는 쉴드충들, 쉴더의 논리모순, 무조건적인, 팬질, 따봉충, 동정론, 무조건 옳다는 식, 파워 쉴드, 빠른이
	비난 댓글 비판	마녀사냥, 선동, 냄비근성, 예술계 전문가를 자처, 이분 구도 강요, 억지로 끼워맞추는, 난도질, 죄인 취급, 물결타기 여론, 억측, 위선, 악마의 편집, 자의적, 증거들의 짜집기

아이유 해명에 대한 댓글은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균형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띠었다. 우선 부정적 입장의 경우 아이유 해명이 불충분하며 모순적이라고 반박하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유가 게시글에서 언급한 '성질'과 '모티브'의 내용이 모순성을 지니고 있음을 비판했다. 또한 특히 가사 이외에도 '앨범 자켓 이미지', '뮤직 비디오' 등 앨범 전반에 내재된 '로리타 요소(소아 성애)'의 메타포를 근거로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반해, 긍정적 입장은 논란에 대한 아이유 해명에 대한 신뢰와 함께, 응원과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부정적 댓글에 대해 억측과 짜깁기를 통한 '마녀사냥 물이'라고 하면서 강한 비난의 담론을 생성하였다.

② 과어휘화 분석

이와 같은 대립의 양상은 과어휘화 분석에서도 이어졌다. 아래의 [표 6]에서 아이유 해명 글에 대한 '긍정 및 옹호의 입장'과 '부정 및 의심'이 가장 많이 과어휘화되었다.

표 6. 아이유 측 페이스북 글에 대한 댓글의 과어휘화

분류	텍스트 내용
긍정 및 옹호	힘내요, 파이팅,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게 보여요, 사람마다 작품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기 마련, 응원하는 팬이 있다는 걸 잊지마세요
부정 및 의심	성질이 섹시하다는 건 말이 안되지, 이제와서 제 3의 인물이라니, 정말 궁금한 부분이 해명글에 없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모순된
소아성애 컨셉의 표현	5살 아이를 성적대상화, 로리타 컨셉, 어린 제제가 망사스타킹을 신고 핀업걸 포즈, 어린이 성 상품화
비난 댓글 비판	마녀사냥, 선동, 냄비근성, 이분구도를 강요, 난도질, 사람 죄인 취급, 물결타기 여론 조성

이와 함께, 제제에 대한 소아성애적 표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특히 가사뿐만 아니라, 앨범 자켓 이미지, 뮤직비디오, 앨범 컨셉 등 전반적인 부분에 내재된 '성적 메타포'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 크게 과어휘화되었다. 한편, 아이유에 대한 마녀사냥, 물결 타기 여론 등 비난 댓글에 대한 비판 역시 자주 어휘화되었다.

③ 전체 분석

해당 댓글 담론의 기호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이유 해명에 대한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이 서로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긍정적 입장의 경우, 아이유 주장의 전체를 따르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그들은 '원작 속 캐릭터'와 '노래가사 속 제제'를 분리하여 생각하고, 해석의 다양성 및 창작의 자유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부정적 입장의 경우 해석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아이유의 재해석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아이유의 해명이 소아성애적 요소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무마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만과 의구심을 해소하지 않고 있다.

2.2 담론적 실천 분석

아이유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그에 달린 댓글들을 전체적인 담론의 맥락에서 함께 살펴보면, 아이유의 해명을 시작으로 새로운 범주가 추가되면서 보다 다채로운 담론이 생성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유가 해명한 글에서 사용한 범주가 댓글 담론을 통해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질',

‘모티브’, ‘캐릭터 해석(가사)’ 및 ‘캐릭터 해석(인터뷰)’ 등 기존의 범주가 댓글을 통해 보다 강화되고 있음도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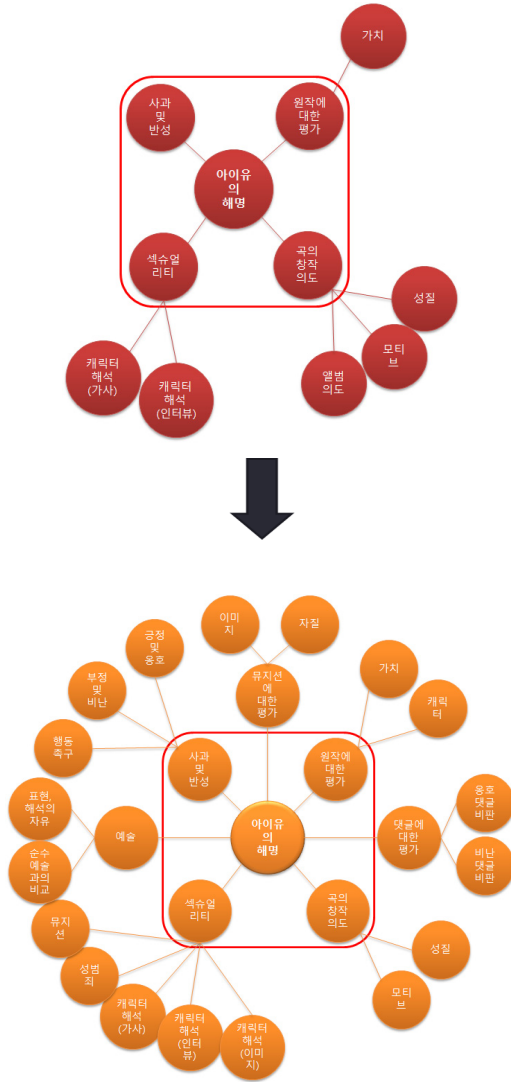


그림 4. 아이유 측 페이스북 글의 답론 구조(위), 아이유 측 페이스북 글에 대한 댓글의 답론 구조(아래)

답론의 구조 변화 과정에서는 특히 ‘섹슈얼리티’에 대한 답론이 새로운 범주의 추가 및 기존 범주의 강화를 통해 가장 크게 대두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이유의 해

명에도 불구하고 캐릭터의 소아성에 건넌 의심 답론이 줄어들지 않은 원인과 긴밀히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사 및 인터뷰 내용 속 ‘성적 의도 해명’에 대한 반박 의견이 강하게 일어났고, 이와 더불어 앨범 자켓, 뮤직비디오, 화보 등 앨범 전반 및 아이유가 기준에 지니온 ‘로리타 요소’가 새롭게 결합되면서 해명에 대한 불신 답론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한편, 아이유에 대한 불신 답론이 억측에 불과하며 대중가수에 대한 지나친 마녀사냥이라는 답론이 ‘해명에 대한 긍정 및 옹호’와 ‘비난 댓글에 대한 비판’이라는 두 가지 범주의 결합을 통해, 또 다른 중심축으로 새롭게 생성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주로 아이유 및 그녀의 곡에 대한 호의 및 신뢰를 기반으로 아이유의 창작 의도에 대한 해명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요컨대, 가장 두드러졌던 두 가지 답론인 ‘소아성에 의심 답론’과 ‘마녀사냥 답론’은 아이유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아이유라는 발화의 주체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위치, 이미지, 정체성 등이 해당 답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이유는 한국 대중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뮤지션으로, 여자 아이돌이자 싱어 송 라이터로서 대중뮤지션 사이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자신이 직접 작사·작곡에 참여하고, 다양한 음악 장르에 도전하는 등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한편, 여자 아이돌로서 성적 매력 어필을 위한 이미지 생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그녀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이미지와 섹시 컨셉의 결합은 대중들로부터 많은 인기와 동시에 비판을 받는 부분이다.

보다 넓은 범위에서 아이유는 대중문화에 포함된다 는 점에서 이미지 소비의 대상이다. 오늘날 대중문화는 실제보다 ‘보여지는’ 이미지가 더욱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아이유에 대한 이미지가 대중의 비판적 판단과 그로 인한 비판 답론의 생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2.3 사회적 실천 분석

아이유의 게시글과 댓글 답론이 사회 실천적 차원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아이유와 그녀를

지지하는 입장을 중심으로 한 ‘반-원작 근본주의’ 및 ‘반-아우라 주의’이다. 이는 원작이 지니고 있는 아우라(aura)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로서, 이는 원작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존중하며, 원작의 내용이나 의도를 넘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자유를 주장한다. 다음으로는 ‘반-도덕주의’로서, 이는 예술을 예술 그 자체로 봐야한다고 생각하며 윤리적 잣대를 예술의 영역에 지나치게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따라서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보다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강조한다.

마지막은 ‘5)이미지 지상주의’다. 이는 아이유가 지닌 이미지가 곡 평가에 있어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추론할 수 있다.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판단 행위는 아이유 <Zeze>에 대한 긍정적 입장뿐만 아니라 부정적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부분이다. 이는 오늘날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방식 및 소비 행태가 사회·문화적으로 반영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논의

1. 동녘과 아이유 중심의 SNS 담론 비교

1) 텍스트 비교

본 담론은 크게 동녘의 비평과 아이유의 해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동녘은 노래 <Zeze>를 비평함에 있어 원작, 섹슈얼리티, 예술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중심 근거로 제기하고 있다. 이들 세 가지 범주가 해당 담론을 이끌어 감에 있어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녘에 달린 댓글은 기준에 제기된 범주를 바탕으로 확장되거나 새로운 범주가 추가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4) 아우라(aura)는 벤야민(W. Benjamin)이 예술 이론에서 차용한 개념으로, ‘어떤 예술작품이나 물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혼, 모방할 수 없는 특유의 기운, 창조성이 느껴지는 유일무이성으로, 복사 예술품과는 다른 예술 작품의 고유한 특성 혹은 미적 속성’을 의미한다.

5) 사전적으로 ‘지상주의’라 하면 그 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삼는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본 논의에서 ‘이미지 지상주의’는 어떠한 판단 및 평가에 있어 이미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태도를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 들어, 과학 기술의 발달을 통해 이미지는 의사전달의 보조 수단을 벗어나 일상생활 곳곳에 침투하였다. 이미지 기반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을 맞이하는 가운데 이미지의 중요성은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표 7. 동녘과 아이유 SNS 텍스트의 범주, 과어휘, 전제 비교

동녘의 비평		아이유의 해명
· 곡에 대한 부정적 평가 · 원작에 대한 애정 · 섹슈얼리티 · 예술의 사회적 책임 강조	포스팅의 범주	· 곡의 의도 해명 · 원작에 대한 애정 · 섹슈얼리티 · 사죄 및 반성
· 곡에 대한 평가: 긍정적(부정적 의견) · 원작에 대한 평가: 캐릭터, 작가, 내용 가치 · 아이유에 대한 평가 · 동녘에 대한 평가 · 섹슈얼리티: 제제의 해석, 아이유의 롤리타 컨셉, 성범죄로 확대 · 예술: 사회적 책임 vs. 표현의 자유 · 예화 댓글에 대한 비난	댓글의 범주	· 곡의 의도에 대한 상반된 반응: 긍정/부정 · 원작에 대한 평가 · 아이유에 대한 평가 · 섹슈얼리티: 제제의 해석(가사, 인터뷰, 앨범이미지), 아이유의 성적 컨셉, 성범죄 등 확대 · 예술: 사회적 책임 vs. 표현의 자유 · 댓글에 대한 반응: 지지자에 대한 비난 & 반대자에 대한 비난(마녀사냥)
· 곡에 대한 부정적 평가 · 원작 소설에 대한 강한 애착 · 제제의 성적 대상화 의심	과어휘	· 긍정적 평가 vs. 부정적 평가 · 제제의 성적 대상화 의심 · 마녀사냥 의심
· 원작의 캐릭터와 소설의 캐릭터 동일시 · 해석의 좋고 그름 분류 · 평가에 있어 원작에 의존	전제	· 원작의 캐릭터와 소설의 캐릭터 분리 · 해석의 다양성 인정 · 평가에 있어 원작과 분리 독립

이에 반하여 아이유는 노래를 생성한 의도, Zeze에 대한 해석, 섹슈얼리티 논쟁에 대한 해명을 하게 된다. 이를 근간으로 기존의 범주 중 강력했던 원작에 대한 담론이 줄어들게 되고, 예술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범주가 생성하게 된다. 또한 아이유에 대한 지나친 공격을 비난하는 마녀사냥 범주가 생성되면서 우호적인 담론이 형성된다. 그러나 여전히 섹슈얼리티 논쟁에 있어서는 아이유의 해명에 의심하는 댓글이 생성되어, 전체적인 담론 안에서 반대 세력과 지지 세력이 대립하는 양상을 띤다.

동녘과 아이유 텍스트 비교를 통해 주목할 점은 각각의 주장이 서로 다른 전제를 두고 있는 점이다. 이는 같은 작품에 대한 비평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2) 담론적 실천 비교

동녘을 중심으로 한 SNS 담론과 아이유를 중심으로 한 SNS 담론은 네트워크 구조의 양상, 내용과 대화 주제 측면에서 다르게 전개된다. 우선, 담론의 네트워크 구조 측면에서 살펴볼 때, 동녘과 아이유가 제기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발화자들이 댓글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의 범주가 강화, 약화, 추가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유 <Zeze> 담론은 기본적으로 위계적 단계 구조를 바탕으로 이전의 담론 구조가 이후의 담론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만, 분화를 통해 기존의 구조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담론 구조를 형성해나가는 특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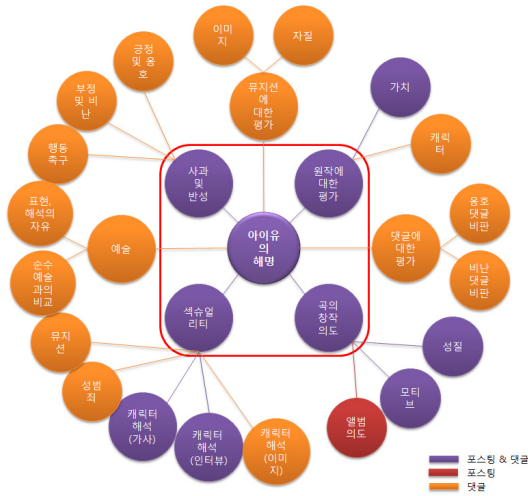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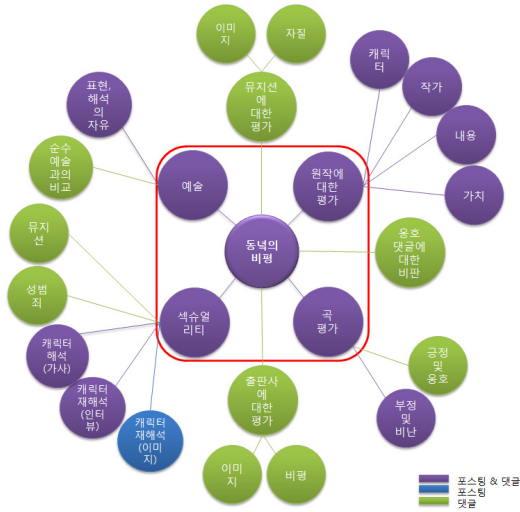


그림 5. 6)동넝 중심의 담론 구조(위), 아이유 중심의 담론 구조(아래)

6) 해당 그림은 '동넝'의 포스팅과 댓글을 합친 것으로, 보라색 부분은 포스팅과 댓글 모두에서 나타난 범주이고, 파란색 부분은 포스팅에서만, 초록색은 댓글에서만 나타난 범주를 나타낸다(아이유 담론의 구조도 이와 같다).

한편, [그림 5]를 통해 동넝 중심의 담론에서 아이유 중심의 담론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주요 범주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다. 우선 원작에 대한 평가 담론은 점차 축소되는 반면, 섹슈얼리티 담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아이유의 해명을 통해 곡의 창작 의도에 대한 논의 및 마녀사냥 의심이 새로운 범주로서 등장하며 기존의 담론과 경쟁하고 있다.

이는 발화의 중심 주체가 담론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드러낸다. 해당 담론의 중심 발화자인 '동넝'과 '아이유'는 사회적 위치 및 이미지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표 8]를 참고하면, 우선 동넝은 원작 소설의 출판사로서, 순수예술 영역인 문학에 있어서 전문성과 지식을 상징한다. 반면, 아이유는 여자 아이돌이자 대중음악가로서 대중문화 영역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이미지 기반의 친근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사회적 위치와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권력'과 연계된다.

표 8. 발화 주체로서의 '동넝' 과 '아이유' 특성 비교

동넝		아이유
원작 <나의라임오펜지 나무>의 출판사 문학, 순수예술	사회적 지위	여자 아이돌, 싱어송라이터 대중음악, 대중문화
전문성 지적 능력 역사성	사회적 이미지	성적대상 vs. 예술가 성적어필 vs. 순수성 - 롤리타 이미지와 연결
↓	↓	↓
순수예술 지식 기반 신뢰성, 전문성	사회적 권력	대중문화 이미지 기반 친근성

결국, 동넝과 아이유는 각각의 개인이지만 순수예술과 대중문화라는 사회적 상징성을 띤다. 따라서 해당 담론은 한국 사회 내에서 순수예술과 대중문화의 권력 다툼으로 연계된다.

3) 사회적 실천 비교

사회적 실천에서 두 담론을 비교하면, 출판사 동넝을 중심으로 한 집단의 경우, 아이유 <Zeze> 해석에 있어 원작의 본질과 윤리성의 문제, 지식적 전문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에 반해, 아이유 중심의 집단은 해석의 다양성과 창작의 자유, 그리고 이미지성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아이유 <Zeze>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신·구(新·舊) 이데올로기의 충돌과 깊은 연관이 있다. 즉, 작품 해석 및 평가에 있어 서로 다른 기준을 두는 행위 이전에는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가 심층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표 9. 사회적 실천 차원에서의 이데올로기적 함의

보수(전통 고수)		급진(변화추구)
원작의 아우라 의존		해석의 다양성 인정
사회적 책임 강조		표현의 자유 강조
지식 기반의 판단		이미지 기반의 판단
보수적 이데올로기와 급진적 이데올로기 차원의 갈등 내재		

VI. 결론

SNS의 등장 이전에도 일반인들은 문화 텍스트를 읽고 자신만의 해석과 평가를 내릴 수 있었으나, 해당 텍스트에 대한 공적인 비평 담론은 주로 소수의 창작자 혹은 전문 비평가들만이 주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SNS 상에서의 다발적 네트워크를 통해, 오늘날 일반 대중들은 대중문화 비평을 위한 공론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자발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텍스트 해석에 있어 기호의 다의성과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사람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고, 때로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첫째, 아이유 <Zeze>를 둘러싼 SNS 비평 담론을 분석하여 SNS 상에서의 대중문화 비평 담론이 기존의 비평 담론과 다른 양상으로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 결과, 아이유 <Zeze>를 둘러싼 담론의 구조가 ‘다층적 위계성(Multi-Layer Hierarchy)’과 ‘분화성(Differentiation)’을 동시에 띠고 있음이 발견됐다.

이는 기존의 대중매체와 같이, 특정 발화자를 중심으로 텍스트가 전달되는 ‘위계적’ 정보의 흐름과 함께, 담론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담론이 점차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하는 분화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기존 대중매체 중심의 일방향적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민주성, 개방성, 다양성이 잠재된 SNS 중심의 다방향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속성이 혼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담론의 변화 양상과 구조를 살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주화 분석, 과어휘화 분석, 전체 분석 등 텍스트 차원에서 보다 세밀한 분석을 시도했고, 나아가 담론 층위 및, 사회 실천적 층위에서 해당 텍스트의 맥락적 연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담론 및 사회 실천적 함의를 발견했다. 이를 통해 아이유 <Zeze>를 둘러싼 논란은 기존의 미학에서부터 이어져 온 해석의 차이에 관한 논의와 깊이 연관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담론의 범주화 분석 결과, 동넛과 아이유를 중심으로 한 각각의 담론에서 작품을 해석함에 있어 사용하는 범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기준을 무엇에 두는가에 따라 같은 작품 텍스트에 대한 해석 및 평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담론적·사회적 차원에서 살펴본 결과, 이는 단순히 개인적 감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의 이데올로기 투쟁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대중문화 비평을 둘러싼 인식 체계의 차이에 따른 갈등으로서 담론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미 투쟁의 헤게모니 장소로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본 논의를 통해 하나의 대중문화에 대한 비평 및 비평을 둘러싼 담론을 분석함에 있어 기존 대중매체인 신문과 TV 등에서 전개되는 담론들이 아닌 새로운 매체인 SNS의 담론들을 통해서도 의미 있는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록 아이유 <Zeze>의 곡과 앨범 자켓에 대한 사례 연구이긴 하지만, 일반 대중들이 대중문화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의 미학적 평가와 주장이 전체 대중문화 비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발견한 것은 아주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대중문화 현상에 대한 평가와 비판에 이어, 이들 SNS를 통한 평가와 비판에 보다 더 많은 학계의 주목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A. Toffler, *The Third Wave*, Pan Macmillan Limited, 1981, 김진욱(역), *제3의 물결*, 범우사, 2014.
- [2] 이경락, *SNS 정치담론의 의제형성과 의미구성 연구 : 제18대 대선 관련 트윗에 관한 담론분석과*

- 사회연결망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3.
- [3] N. B. Ellison, C. Steinfield, and C. Lampe, "A face(book) in the crowd: social searching vs. social browsing," Proceedings of the 2006 20th anniversary conference on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pp.167-170, 2006.
- [4] 정기한, 정지희, 신재익, "기업의 SNS 활동이 브랜드 및 구전,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pp.1-8, 2010.
- [5] M. Poster, *The second media age*, Polity Press, 1995.
- [6] M. Kapur, "Civil Liberties in Cyberspace," *Scientific American*, Vol.265, No.3, 1991.
- [7] 신현기, 우지숙, "트위터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담론활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10년 6·2 지방선거 관련 트윗글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19권, 제3호, pp.45-76, 2011.
- [8] 백선기,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표출되는 표현들의 기호적 속성과 의미의 함축성: 주요 사회 의제에 관한 트위터 내용들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제30권, pp.37-75, 2011.
- [9] 강동현, *위계와 분화: SNS 사회운동의 두 가지 조직화 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6.
- [10] 백선기, 김소라, "지배 담론과 대항 담론: 동성애에 대한 '매스 미디어' 와 '게이 커뮤니티'의 담론 관계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pp.78-114, 1998.
- [11] C. Barker and D. Galasinski, *Cultural Studies and Discourse Analysis*, Sage, 2001, 백선기(역), *문화연구와 담론분석: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담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12] M. Foucault, *L'archéologie du savoir*, Gallimard, 1969, 이정우(역), *지식의 고고학*, 민음사, 1992.
- [13] D. Hebdige, *Subculture: The Meaning of Style*, London: Routledge, 1979, 이동연(역), *하위문화: 스타일의 의미*, 현실문화연구, 1998.
- [14] J. Curran, D. Morley, and V. Walkerdine, *Cultural Studies and Communications*, 1996, 백선기(역), *대중문화와 문화연구*, 한울, 1999.
- [15] J. Fiske, *Reading the Popular*, 1989, 박만준(역), *대중과 대중문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16] FKII 조사연구팀, "소셜 미디어란 무엇인가?," 정보산업, 통권 제242호, 2006.
- [17] 박송호, *SNS 서비스 재현성에 대한 시뮬라시옹 현상*,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 인터랙션디자인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3.
- [18] 정재철, *문화연구의 핵심 개념*,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19] 유영석, *롤랑 바르트의 후기구조주의 텍스트 이론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4.
- [20] 백선기, "대중 문화 텍스트의 '다의성'과 사용자 '해독' - 서태지와 아이들의 <Comeback Home>에 대한 윌리스의 분석틀 적용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제2권, 제1호, pp.211-258, 1996.
- [21] 윤주한, *예술작품의 해석과 예술가의 의도의 관계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3.
- [22] 신운화,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적 다원론에 관한 연구 - J. 마콜리스의 상대주의 해석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4.
- [23] S. Hall,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 and Signifying Practices*, Sage, 1997.
- [24] 김정미, *대중문화 수용에 있어서 대중의 주체성 모색: 스텐더트 홀의 문화 연구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영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5.
- [25] U. Eco, *Les Limites de l'interprétation*, 1990, 김광현(역), *해석의 한계*, 열린책들, 2009.
- [26] 오병남, *미학강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 [27] N. Fairclough, *Language and Power*,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89.
- [28] 정미정, 백선기, "한국신문의 영화에 관한 보도 담론의 특징과 의미: 산업담론과 문화담론의 대립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5권, 제3호, pp.28-53, 2011.

[29] 백선기, 김강석,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보도와 담론 및 그 이데올로기적 의미: 기호네트워크 분석방법(SNA)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12, pp.483-503, 2009.

[30] <https://www.facebook.com/dongnyokpub/posts/439616442895016:0>

[31] <https://www.facebook.com/iu.loen/posts/899916456760779>

저 자 소 개

우 지 혜(Jihye Woo)

준회원



- 2014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영학과(학사)
- 2015년 3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예술학협동과정(석박사 연계과정)

<관심분야> : 대중문화, 예술, 미학, 기호학, 담론연구

백 선 기(Seon Gi Baek)

정회원



- 1979년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학사)
- 1981년 : 서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석사)
- 1985년 : 서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박사과정 수료)

- 1989년 : Univ. of Minnesota, Communication Studies 전공(박사)
- 1990년 ~ 1997년 :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1997년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현 PACA 회장, WCA 회장, IAMCR 국제평의회 의원, 한국방송학회 회장 및 한국기호학회 부회장 등 역임

<관심분야> : 기호학, 대중문화, 문화연구, 담론연구